

전주시 장애인 산모 지원제도 '주목'

산전준비부터 출산·양육 진료비와 기저귀·분유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주시가 장애인 임신부를 위해 특화된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임신부에게는 산전준비부터 출산과 양육 등에 필요한 진료비와 기저귀, 분유 등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제도,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장애인산모 특성화 산부인과 지정·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모가 장애인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200만원에서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제공된다.

또한 시는 지난달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한 영유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 씩 총 240만원의 양육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 산모를 포함한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필요한 진료비(산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의 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지원된다.

또, 전주시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가 방문해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4주(20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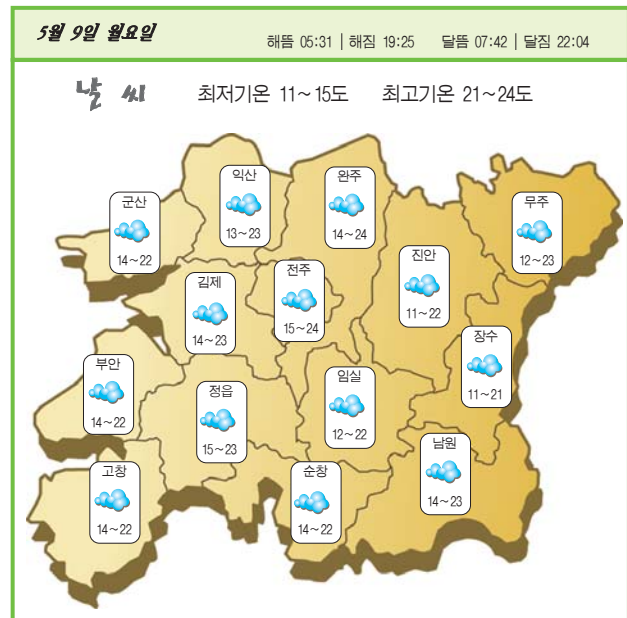
시는 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 중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인 가정에는 3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 이상 자녀에게는 1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한다. 넷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는 25만원의 육아용품 구입비가 추가 제공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전북대학교병원과 예수병원, 한나여성병원, 미르피아여성병원, 한별여성병원 등 5곳을 여성장애인이 산전 진찰부터 분만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임신부 특성화 산부인과'로 지정했다.

장애인 임신부 특성화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와 문턱 없는 시설 등을 갖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여성장애인들이 특성화 산부인과를 이용해 심리적인 위축 없이 산전 진찰부터 분만까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와 보건소, 구청 및 주민센터, 관내 산부인과 병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제도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프랑스 위크' 개막 한불수교 130주년

15일까지 '사진으로 보는 UN 한국전쟁 프랑스 대대' 등 열려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문화축제인 '전주 프랑스 위크(Jeonju French Week)' 행사가 6일 전주 한옥마을 내 여명카메라박물관 및 한국전문화전당에서 시작을 알렸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프랑스 대사관 에피엔 퐁랑 피에그 부대사는 이날 사진전 개막식에서 "3500여 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떠나면 미지의 나라인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며 "이는 한국과 프랑스의 확고한 우정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문화전당에서는 한국-프랑스 자수전인 '한국-프랑스

자수교류전-생활 속의 자수수품'의 개막행사가 열렸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프랑스 위크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11일 전주국제한식조리학교 도리상영에서는 '봄, 프랑스와인 전주한식'을 탐하다 라는 프랑스와인과 전주한식 홍보행사가 국제한식조리학교 주관으로 열리며, 12일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대인문영상연구소와 공동주최하는 프랑스 베르사유 바로크음악센터 내한공연이 오후 7시 30분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진행된다.

끝으로 오는 13일은 방송인 '이다 도시와 함께하는 프랑스 문화여행(동화구연)'과 '이다도시 프랑스 감성교육(부모교육 특강)'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다.

사진전과 자수전은 오는 12일까지 여명카메라박물관에서, 15일까지 한국전문화전당에서 각각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jonju.go.kr) 참고 /김영재 기자

풍남문 미디어파사드, 근현대 전주모습 빛으로 재현

국제영화제 맞아 일러스트레이션 전주 옛 풍경·3D 공간 속 시대별 생활사, 고전영화로 본 근대 생활사 등 선보여

최첨단 영상기술을 활용한 풍남문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전주를 대표하는 야간 상설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6일 풍남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시민과 관광객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 파사드' 공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 공연이 국제영화제 기간에 맞춰 3차 콘텐츠를 선보이고, 평일 야간 상설 콘텐츠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진행자와 풍남문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함께 외친 카운트다운에 이어 풍남문이 열리는 사물놀이와 현대무용 등 특별한 공연이 가미된 미디어파사드가 진행돼 기념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전통성당에서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미디어파사드 공연은 지난 3월부터 풍남문으로 자리로 옮겨 2차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최근 국제영화제를 맞아 5분 가량의 이야기를 추가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재현된 전주의 옛 풍경과 3D 공간 속 시대별 생활사, 고전영화로 본 근대 생활사 등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선을 보였다.

이번 3차 콘텐츠에서는 기존 공연에



전주시는 지난 6일 풍남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시민과 관광객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 파사드' 공연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 부족했던 전주의 근현대 모습이 더 추가됐다.

미원탑이나 전주우체국 사거리, 코리아극장 등 기성 세대가 기억하는 1970년대 전주의 모습을 컬러풀한 손 그림으로 그려내는가 하면,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삶의 모습을 풍남문에

투사해 실감나게 각각의 공간에 담아냈다.

이와 함께 전주국제영화제를 맞아 해외영화산업의 호황기였던 지난 1960년대 전주에서 제작된 '선화공주', '격퇴', '피아플' 등의 영화와 '하녀', '마부',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등 한국영화사

에서 발자취를 남긴 고전들을 통해 보는 근대생활사 영상도 추가됐다.

시는 새롭게 선보인 이번 3차 콘텐츠를 오는 6월 중순까지 진행하고, 이후 새로운 4차 콘텐츠를 제작해 공연이 끝나는 오는 7월 말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원광대 개교 70주년 기념 역사사진전 13일까지

원광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사진전을 개교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13일까지 송산기념관 LINC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사진전은 1946년 5월부터 70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소중한 기록을 모아 준비했으며, 255점의 사진 전시와 함께 전시장 가운데는 배치와 초기 간

행물, 증명서를 비롯한 기념물 등 131점을 따로 전시해 초창기 원광대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원광 2022 비전을 통해 꽃피울 100년을 준비하는 원광대의 미래를 내세움으로써 나날이 발전하는 원광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익산=장영희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